

 보건복지부		<h1>보 도 참 고 자 료</h1>		
배 포 일		2020. 3. 4. / (총 3매)		
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관리팀	팀 장	유 보 영	전 화	044-202-3711
	담 당 자	송 진 성		044-202-3625

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, 경북대구3 생활치료센터(문경 서울대학교병원 인재원) 개소식 참석
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 (보건복지부 장관)은 3월 4일(수) 14시 30분에 경북대구3 생활치료센터(문경 서울대학교병원 인재원) 개소식 참석과 생활치료센터 설치·운영 상황을 점검하였다.
- 경북대구3 생활치료센터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의료진 파견과 서울대병원 인재원(교육시설)의 생활치료센터 사용 제공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설치하였으며, 3월 5일(목) 오전부터 환자가 입소하게 된다.
 - 센터에는 99명의 경증 확진자가 입소하여 생활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예정으로, 입소 정원에 여유가 있는 경우 경상북도 확진 환자 이외에 대구시 등 다른 지역 환자도 시설입소가 가능하다.
 - 센터 입소 대상은 보건소 및 시·도 환자관리반에서 병원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증 확진자로, 확진환자 중 고위험군이 아니면서 무증상이나 경증인 경우이다.

- 경북대구3 생활치료센터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전문의를 1명 더 배치, 환자를 관리하게 된다.
-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경북대구3 생활치료센터 개원식을 통해 “정부의 코로나19 치료체계 재구축 방안에 적극 동참한 김연수 병원장을 비롯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에게 감사”를 전했다.
- 또한 “전국적으로 확대 중인 생활치료센터는 중증과 위중 환자들에게는 전문 입원치료를, 경증환자들에게는 안전한 건강관리와 치료를 제공하여 조속한 일상 복귀에 중점을 두었다”고 언급했다.
- 박능후 1차장은 센터를 둘러본 이후, 체계적이며 세심한 환자 관리 준비를 끝내준 의료진과 정부합동지원단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였다.
- 아울러 환자 관리에 있어서 의료진과 지원인력들의 건강과 생활에 지장 없도록 감염관리과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.
- 박능후 1차장은 이날 현장 점검을 마치며 “서울대병원이 참여한 경북대구3 생활치료센터와 같은 민·관 협력모형에 의한 센터 설치가 조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< 붙임 > 경북대구3 생활치료센터 개요

붙임

경북대구3 생활치료센터 개요

□ (현황) 경북 문경시 서울대학교병원 인재원을 활용, “경북대구3 생활치료센터” 개소

□ (입소 인원) 경북·대구 경증확진자 99명 입소 가능

< 운영 인력 구성 >

□ **민관합동지원단을 구성하여 의료 및 생활지원서비스 제공**

○ (의료인력) 의사 3명, 간호사 6명, 방사선사 1명

* 서울대학교병원 : 의사 2명, 간호사 4명, 방사선사 1명 파견 및 상주

* 복지부 : 의사 1명, 간호사 2명 모집 및 배치

○ (행정인력) 보건복지부, 경상북도, 문경시, 국방부, 소방청, 서울대학교병원 등

○ (의료물품) 자가관리 위생키트, 방호복 등 의료물품* 준비

* 자가관리 위생키트 110개, N95마스크 1,000개, 방호복(Level-D 세트) 50개, 라텍스 글러브 1,500개, 보건용 마스크 2,000개, 검체 채취키트 150개 등

□ (의료 서비스) 입소자에 대해 지속적·주기적 의료 증상관리 실시

* 체온측정, 호흡기 증상 등 매일 2회 의료 모니터링 시행

* 의료진 판단하, 증상 악화시 환자 이송 시·도에 보고 및 연계 의료기관으로 이송

< 경북대구3 생활치료센터 현장 사진 >

